

오늘의 주요 언론보도

- 2024년 3월 26일 -



주요 기사내용		해당부서	보도매체
○	감귤 신품종 ‘맛나봉·레드스타·설향’ 내년부터 보급-6면	과수연구과	뉴제주일보
○	‘맛나봉’ 내년 농가 보급-6면	과수연구과	한라일보
○	[기고] 돌봄 경제와 치유농업-14면(한윤아)	기술지원조정과	제주일보
○	[기고] 농업·농촌 자원의 공익적 가치 재조명-14면(이미숙)	서귀포농업기술센터	한라일보
○	주간농업농촌소식-4면	기술지원조정과	제주매일
○	영농부산물 태우지 말고 파쇄하세요-14면 (이석근 회장)	-	뉴제주일보
○	道, 올해 첫 추경 편성 착수... “민생 안정에 집중” -2면	-	뉴제주일보
○	꽃꿀지원사업 대폭 축소 물량부족 우려-2면	-	제민일보

(뉴제주일보: 2024년 3월 26일)

○ 감귤 신품종 ‘맛나봉·레드스타·설향’ 내년부터 보급-6면

감귤 신품종 ‘맛나봉·레드스타·설향’ 내년부터 보급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직무발명 감귤 품종인 ‘맛나봉’, ‘레드스타’, ‘설향’의 신속한 보급을 위해 도내 종자업체와 품종 보호권 통상실시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통상실시는 실시권리를 독점으로 사용하는 ‘전용실시’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서로 다른 업체와 중복으로

품종보호권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이번 계약으로 도내 종자업체에 내년부터 5년간 통상실시권을 이전하며 ‘맛나봉’ 5만6500주, ‘레드스타’ 5만4500주, ‘설향’ 3만 9300주 등 총 89ha에 심을 수 있는 감귤 신품종 15만300주가 도내 보급될 예정이다.

3.26.
현대성 기자 ca 뉴제주일보 6

(한라일보: 2024년 3월 26일)

○ ‘맛나봉’ 내년 농가 보급-6면

‘맛나봉’ 내년 농가 보급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직무발명품종인 ‘맛나봉’, ‘레드스타’, ‘설향’의 도내 신속한 보급을 위해 품종보호권 통상실시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농업기술원은 이번 계약을 통해 도내에 사업장을 둔 종자업체를 대상으로 통상실시권을 5년간 이전해 맛나봉 5만6500주, 레드스타 5만4500주, 설향 3만9300주 등 총 89ha에 식재 가능한 15만300주가 도내 한정 보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올해 종자업체에서 묘목을 생산하고 내년부터는 1년생 묘목이 농가에 보급된다.

이들 3개 품종은 2011년 황금향(모본)과 레드향(부본)을 교배해 육성했다. 12월 중순에 수확하는 맛나봉은 당도 13.6브릭스, 산함량 1.06%, 과중 237g으로 노지재배가 가능하다. 레드스타도 12월 중순 수확하는 품종으로 당도 12.0브릭스, 산함량 1.00%, 과중 217g으로 옐로우색을 띠는 빨간색의 매끈한 과피가 특징이다. 설향은 당도 15.1브릭스, 산함량 0.90%, 과중 212g으로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타 품종과 달리 수확기가 1월이다. 한라일보 6

(제주일보: 2024년 3월 26일)

○ [기고] 돌봄 경제와 치유농업-14면

돌봄 경제와 치유농업



나의 의견

한 윤 아

제주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2024 트렌드 코리아에 의하면 올해의 10대 키워드 중 10번째가 '돌봄 경제'라고 한다. 돌봄 경제는 누가, 누구를, 어떻게 돌보는지를 기준으로 장애인, 영유아·고령자 등 신체적 약자의 어려움을 챙겨주는 '배려 돌봄'과 신체적 불편함을 넘어 마음까지 세심하게 보살피는 '정서 돌봄', 일방적인 돌봄이 아닌 상호간의 존중을 기반으로 한 '관계 돌봄'으로 구분 짓는다.

요즘 농업 사회에서도 '치유농업'이 떠오르고 있다. 치유농업은 농업 활동을 통해 신체적 건강을 얻거나, 식물을 기르면서 정서적인 교감을 가져 위안과 안정감을 얻는 일종의 치유 재활 프로그램이다.

앞서 언급한 돌봄 경제 중 관계 돌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를 활용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각종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게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북돋는 활동을 함으로써 돌봄 경제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엄마도 엄마가 필요한 사회이다.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회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소비자들에게는 정서적인 치유를, 농업인들에게는 경제적인 도움으로 또 다른 치유를 선물하기 위해 치유농업을 체계적으로 집중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분초사회를 숨 가쁘게 살아가는 요즘, 많은 이들이 치유농업에 관심을 갖고 활용해 치유 농장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잠시나마 숨을 돌리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

제주일보 14

(한라일보: 2024년 3월 26일)

○ [기고] 농업·농촌 자원의 공익적 가치 재조명-14면

농업·농촌 자원의 공익적 가치 재조명



이 미 숙

도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

‘힘차게 도약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이라는 농정 핵심 비전에는 스마트농업과 미래 먹거리 창출 산업으로 농식품산업을 키우는 한편, 국민을 위한 삶터·일터·쉼터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농촌을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여행트렌드 조사 대상의 82.3%가 여행지에서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은 채로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풀고, 온전히 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여행에 관심을 나타냈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진정한 휴식과 함께 새로운 경험 및 추억을 동시에 추구하는 농촌 여행 ‘촌캉

스’가 재조명되면서, 농업·농촌을 1차 산업에 국한하지 않고 공익적 가치 창출의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도 2010년부터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농촌 융복합(농외소득) 활성화 사업장 조성, 관광 트렌드에 걸맞은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진로체험 농장 조성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올해 신규 조성하는 농촌융복합 치유농장을 포함해 4개 분야 25개 사업장을 육성하고 있으며 사업자 역량강화 컨설팅과 교육을 통한 경영 내실화, 상품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소득 안정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촌융복합 산업의 영역을 제주형 치유농업 서비스로 확장해 농업과 복지를 아우르는 사회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갈 뿐만 아니라 농업·농촌 자원의 공익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제주 경제의 ^{3.26.}활성화에도 이바지해 나가고자 ^{한라일보 14}

(제주매일: 2024년 3월 26일)

○ 주간농업농촌소식-4면

주간농업농촌소식

주간농업농촌소식 2024-11호(2024.3.25.)

여건변화 대응 농업현장 중심 실용기술 개발·보급

주요 농작물 관리요령 및 병해충 방제정보를 안내합니다

■ 단호박

- 3월 20일경부터 정식작업 시작
- 본엽 4~5매 시 정식. 정식 전 멀칭 및 터널용 폴대 설치
- 밑거름: 10a당 퇴비 1,500, 요소 37, 용성인비 75, 염화칼리 34

■ 구쪽파

- 비닐피복포장 위주 잿빛곰팡이병, 노균병 방제

■ 마늘

-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포장에서 흑색썩음균핵병, 잎집썩음병, 뿌리응애 발생. 방제 필요

■ 중·만생양파

- 동부지역 일부 노균병, 잎마름병 발생. 방제 필요
- 총채벌레, 나방 등 예찰 방제

■ 봄감자

- 동부지역 파종 완료. 서부지역 비닐 타공 중
- 서리 및 바람피해 시 요소 0.2%액 엽면시비

- 담당부서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760-7531326-)

제주매일 4

(뉴제주일보: 2024년 3월 26일)

○ 영농부산물 태우지 말고 파쇄하세요-14면

영농부산물 태우지 말고 파쇄하세요

제주의 봄은 감귤나무 전정의 계절이다. 농부의 부지런한 가위질이 더해져야 햇살을 듬뿍 담은 맛있는 감귤이 되고 적정량이 생산되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명품 감귤이 탄생한다.

하지만 감귤 전정이 끝난 후에는 농가마다 수북이 쌓인 잔가지(이하 영농부산물) 처리가 쉽지 않다.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봄철 파쇄기 임대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며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말고 '파쇄'해야 한다는 의식이 많이 확산되긴 했지만 여전히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경우가 있다.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면 무엇보다도 화재 위험에 쉽게 노출되고 미세먼지와 유해가스가 배출돼 환경을 오염시키며 농업인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파쇄기로 잘게 파쇄한 후 토양에 되돌려 보내면 거름이 되어 토양을 개선하고 미세먼지와 유해가스



이석근

(사)한국농촌지도자
제주시연합회장

가 배출되지 않아 농촌 환경이 쾌적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말고 '파쇄'해야 하는 이유다.

올해 (사)한국농촌지도자제주시연합회에서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파쇄작업단 3팀을 구성했으며 파쇄작업단은 3월부터 23ha 67농가를 대상으로 감귤 전정까지 파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통해 농업 분야 미세먼지 저감 및 자원 순환을 실천하고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으로 인한 화재 발생요인을 제거함은 물론 영농부산물 처리에 대한 농가 인식을 개선할 수 있기를 기대 본다.

(뉴제주일보: 2024년 3월 26일)

○ 道, 올해 첫 추경 편성 착수... “민생 안정에 집중” -2면

道, 올해 첫 추경 편성 착수...“민생 안정에 집중”

재원 마련 ‘관건’...“집행 부진 사업 구조조정, 기금 등 활용”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생 안정을 위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섰다.

제주도는 2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각 부서로부터 추경 예산 수요를 수합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주도는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소상공인과 영세 농·수·축산업자,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3.26. 뉴제주일보 2면
제주도는 5월 중 제주의회의에 추경

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제주도가 민생 안정을 위해 올해 첫 추경 예산 편성에 나섰다지만 관건은 재원이다. 정부의 추경이 없는데다 세수 감소 등의 여파로 제주도정의 공간 상황이 위축된 만큼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 투입 여력은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앞서 지난 6일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자리에서도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재원은 많지 않아 걱정”이라며 “추

경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민생 안정에 집중해야 하고 2025년도 예산안과도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제주도는 추경 예산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올해 사업 점검 및 기금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의 추경이 없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추경 예산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면서도 “올해 이월이 예상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들에 대한 구조조정, 기금 등을 활용해서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제민일보: 2024년 3월 26일)

○ 풋굴지원사업 대폭 축소 물량부족 우려-2면

풋굴지원사업 대폭 축소 물량부족 우려

제주도, 올해 재정난 발생

농약검사·포장·택배 등
3개 사업 예산 40% 축소
농가당 지원도 줄어 걱정

제주도가 올해 재정난을 이유로 풋굴 유통 지원사업을 대폭 축소해 농가들의 출하 물량을 따라가지 못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도는 풋굴의 안정생산과 소비시장 확대를 통해 농가의 신 소득 창출을 3.26. 제민일보 2 조례에 따라 매년

풋굴 농약검사비, 포장상자비 및 홍보비, 택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2024년산 풋굴 안정생산·유통 추진계획’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풋굴 유통처리계획 물량이 1200t으로 지난해 유통실적 1337t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사업 투자계획을 보면 ‘풋굴 농약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이 지난해 9300만원에서 올해 6500만원으로, 포장상자 등을 지원하는 ‘풋굴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이 9500만원에서 6650만원으로, ‘풋굴 출하 농가 택배비 및 물류비 지원 사업’은 2억원에서 1억원으로 감소했다.

3개 사업 전체 예산은 지난해 3

억8800만원에서 올해 2억3150만원으로 40% 감축됐다.

예산이 감소함에 따라 1회당 18만원(농가당 3회 이내)을 지원하는 농약검사비 사업은 지난해 516건에서 올해 361건으로 사업량이 줄었다.

풋굴 택배비 지원은 농가당 최대 300만원에서 올해 200만원으로 지원한도가 33% 감소했고 사업량은 8만건에서 4만5000건으로, 상자(5kg·10kg)당 지원은 2500원에서 2000원으로 각각 줄어들었다.

택배 상자당 640원을 정액 지원하는 포장상자비 지원은 농가 수요량에 따라 최대 7만매를 제작할 예정이지만 사업량이 1200t으로 출하량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

이다. 지난해(2023년산) 풋굴 유통 상황을 보면 생산농장 지정현황은 455농가 2023t이며 출하실적은 406농가 1337t이었다.

반면 올해 풋굴 유통지원 사업량이 1200t으로 지난해 실제 출하량보다 적고 농가당 지원 규모가 일부 감소해 유통지원 사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예산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재정난으로 올해 예산안에서 사업비들이 일괄 감축된 영향으로 40% 감액이 불가피했다”며 “5월 초까지 신청 규모를 보고 사업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추가 예산 확보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철 기자